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자유기고가 김춘겸

건강이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부터 오복(五福)이 중요시 되어왔습니다. 스트레칭, 요가, 수지침, 복근운동, 발마사지, 뼈마사지, 깊은 호흡, 스포츠마사지, 엉덩이와 허벅지 그리고 뱃살빼기. 군살은 썩 빼고 몸매에 탄력을 줍니다. 요요 현상없는 과학적인 다이어트, 매일 덤벨 체조. 덤벨 체조는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사무실에서 짬짬이 쉽고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몸매를 망치는 군살을 빼고 군살을 탄력 있는 근육으로 바꿔 날씬한 몸이 됩니다.

이인직(李人植)의 신소설로 융희(隆熙) 2년(1908)에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 표지에 《신연극(新演劇)》이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신연극의 각본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세계(銀世界)》입니다.

주인공 최병도로 하여금 부패한 양반관리에 끝까지 항거하게 하여 지배층의 학정을 폭로하고, 이에 반기를 든 피지배층의 반항을 고취한 내용입니다. 신소설 중에서 가장 주제 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 강릉(江陵) 산골에 사는 최병도(崔秉陶)는 근실한 농민으로 생활이 유여(裕餘)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벼슬을 산 강원감사는 부임 첫날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심하여 마침내 최병도는 영문장차(營門將差)에게 끌려가 죄없이 형장(刑杖)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뇌물을 강요하는 영문장차에게 끝까지 반항하다가 장독(杖毒)이 나서 최병도는 끝내 죽고 맙니다. 그 자녀 옥순(玉順)과 옥남(玉南)은 부친의 유언대로 외국에 유학하여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고 돌아와 정치개혁을 역설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이 갈구하는 욕망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수 아니면 죽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영생일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들은 죽음 후에 신으로서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의 도대체 그 커다란 돌을 어디에서 구했으며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의문이 갑니다.

<여시(如是)>는 1928년 6월 1일 창간된 교양잡지로 월간지 인데 경성여시사가 발행했습니다. 편집겸 발행인은 방인근(方仁根)이고 판형은 국판으로 유엽(柳葉)과 이용우(李用雨) 등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잡지입니다. 민족진영의 학자·문인·종교인들이 집필에 참가하였습니다. 창간호에서 염상섭의 <문예가의 사회성>이 전문 삭제당하는 등, 처음부터 고초를 겪다가 애석하게도 창간호로 끝났습니다.

여시(如是)는 여차(如此)와 같은 뜻으로 이러함, 이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 경전의 모두(冒頭)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의 뜻인 여시아문(如是我聞)입니다. 가

르침을 바르게 들어 신뢰함을 나타냅니다. 석가 입멸시에 제자 아난(阿難)에게 지교(指教)한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줍니다. 오즈옴은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반항과 증오의 외침을 닮아 있었다는군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눈물은 침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생(生)을 누군가에게 바치기로 결심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생성된 문학사조가 앙가주망 문학(文學)이지요. 문학을 통하여 정치와 사회 등 현실문제에 깊이 참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소설가·극작가 사르트르(Jean -Paul Sartre:1905 ~1980)의 실존주의 문학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앙가주망(engagement)은 사회참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에 대항하여 현실사회에 깊이 관여하여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내세운 문학을 말합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이를 처음으로 주장했으며, 혼

히 참여문학(參與文學)이라 번역되지요.

사르트르에 의하면, 말하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며, 작가는 현실 상황을 폭로함으로써 세계를 변혁시키고자 피하고, 또 독자는 폭로된 대상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문학은 작가와 독자의 긴밀한 협력아래 창조되며, 작가도 독자도 필연적으로 사회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의 행동에의 지향은, 특히 20세기 프랑스에서는 소설가 말로(A. Malraux: 1901~1976) 등의 이른바 행동문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뒤이어 아라공이나 엘뤼아르 등의 소위 저항문학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실존주의 문학으로 이어져 비로소 현실 참여에의 의식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름지기 그 핵심을 잡아라. 인생의 포인트를 잡아라. 중심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옛말에도 윤집궐중(允執厥中)이 있지요. 당신은 절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아니됩니다. 능력과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집중(執中)하십시오.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잃어버린 인생의 어떤 부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요약의 달인은 숫자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필히 두뇌에 휴가를 주십시오. 욕속부달(欲速不達), 일을 너무 속히 하려면 도리어 이기지 못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느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 있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More haste less speed).

은어(隱語)는 직접으로 그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은연 중에 그 뜻을 통하게 하는 말로, 우리말로 는 변말(secret language) 또는 결말(cant)이라고 합니다. 직접 그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않고 은연 중에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하게 하는 말입니다. 각계 각층 사회에서 행하여지며, 일종의 비밀용어로서 특수한 집단이나 환경 속에서만 통용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수환경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은어에는 방언이나 외래어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형식상으로 보면, 의태어·의성어·전도어(顛倒語)·생략어·형용어 등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은어의 생명은 비밀유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어화(日常語化)하였을 때에는 이미 은어의 의의가 상실되고 맙니다. 10